

진도 신비의 바닷길 온라인축제 대성공

조회수 12만회 성황 속 마무리
바다 갈라짐 4800명 동시 접속
진도 문화예술 공연 등 큰 호응



지난달 27일부터 3일간 열린 '2021 진도 신비의 바닷길 온라인 축제'가 행사 기간 누적 조회수 12만회를 기록하며 성황리에 끝났다. 진도 신비의 바닷길. <진도군 제공>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치러진 '2021 진도 신비의 바닷길 온라인 축제'가 행사 기간 누적 조회수 12만회를 기록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42회째를 맞은 올해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온라인으로 전면 전환해 진행됐다.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생중계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의 활발한 홍보 활동으로 관광객, 문화예술, 농수특산품 등 진도군을 널리 홍보하면서 축제를 뜨겁게 달궜다. 신비의 바닷길 현장 동영상 드론 촬영, 병행하며 니 제레와 진도북놀이 등 보배섬 진도군이 간직한 전통 문화예술 공연 중계 등을 실시해 시청자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특히 축제 기간 동안 동시 시청자 4821명, 댓글 등 누적 채팅 2896건, 누적 조회수 12만회 기록을 남기며 온라인 축제에 성공을 거두었다. 신비의 바닷길이 갈라지는 생생한 장면을 라이브로 송출해 큰 호응을 얻으며 인기를 실감하게 했다.

유튜브 라이브 방송은 축제 기간 매일 송출했으며, 최대 4000여 명이 접속해 진도군 신비의 바닷길 갈라짐 현상 등 자연 경관과 독특한 문화·예술 공연 등을 즐겼다. 이 외에도 '나도 와썴라-신비의 바닷길 축제 추억의 인종샷', '도전! 온라인 퀴즈 열정', '진도 출신 가수 송가인씨 노래 따라 부르기' 등의 이벤

트도 큰 호응을 얻었다.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관계자는 "온라인 축제를 개최하는데 큰 경험과 노하우를 얻었다"며 "처음 시도한 온라인 축제인 만큼 사후 평가에도 심혈을 기울여 앞으로의 축제들을 더 알차게 준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진도=박희영 기자 hypark@kwangju.co.kr

목포역 철도시설 재배치
기능 개선 용역 중간보고회
신축방안·숲 광장 조성 등 논의

목포시는 3일 목포역 철도시설 재배치와 대개조를 위한 기본 구상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목포시는 최근 김종식 시장을 비롯해 김원이 국회의원, 도·시의원,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목포역 철도시설 재배치 및 기능개선 구상'을 위한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의 주요 과제는 목포역 철도시설 재배치 방안과 목포역사 신축방안 대안 제시, 시민의 숲 광장 조성, 통합환승센터 설치, 주차장 조성 방안, 기타 부대시설 및 여객 편의시설 설치 등이다. 참석자들은 목포역사 신축방안의 대안별 전략 과제들에 대해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목포역은 지난 1979년 7월 신축된 뒤 2004년 4월 KTX 운행으로 증축됐다. 하지만 노후되고 비좁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타당성 있는 기본 구상안을 마련한 뒤 중앙부처,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 등을 방문해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공청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목포역을 목포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주민친화적인 공간으로 구성해 가치와 활용도를 높여겠다"고 말했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신안군 압해도 갯벌 철새 서식지 환경 개선



해안펜스 설치 이후 관찰된 멸종위기조류 노랑부리저어새와 왜가리. <신안군 제공>

신안군은 국제적인 철새 이동경로인 압해도 대천리 갯벌 일대에 서식지 안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압해도 일대 갯벌은 봄, 가을철 번식과 월동을 위해 이동하는 다양한 도요·물떼새류들이 지친 체력을 보충하기 위해 잠시 쉬어가는 중요한 중간기착지이다. 군은 철새들이 안정적인 먹이활동과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주요지점에 해안펜스(가림막) 200m를 시범 설치했다. 압해도 갯벌에서 먹이활동을 하는 조류들은 만조가 되면 휴식할 수 있는 장소로 이동하는데, 모니터링 결과 해안펜스가 설치된 방조제와 모래톱을 집중적으로 이용했다. 이는 해안펜스가 조류들에게 안정적으로 휴식할 수 있는 환

경개선에 효과적임을 확인한 결과이다. 또 철새들이 집중적으로 모여드는 4개 지점에는 압해도 갯벌과 모래톱의 중요성, 멸종위기 조류 등을 소개하는 생태안내판을 설치했다. 해안펜스에도 압해도를 찾는 철새들의 사진을 부착해 보는 재미를 더했다. 군은 서식지 안정화 효과가 입증된 해안펜스를 올해 200m 연장 설치해 철새 서식지 환경개선에 힘쓰는 계획이다. 이러한 시설은 향후 압해도 갯벌의 생태관광 자원으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정정 신안은 생물권보전지역, 철새 서식지로 지정·보호하고 있어 철새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다양한 생물자원 보전과 안정적인 서식지 조성에 힘써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신안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500억원 조성 추진

전 군민 동참 분위기 조성 나서

해남군이 교육 백년대계를 위해 장학사업기금 500억원 조성을 추진한다. 청소년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인재양성과 장기 교육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전 군민이 동참하는 기금조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군은 장학사업기금 확충을 위해 지역업체와 장학금 기탁 협약을 비롯해 공직자 기부, 군민들의 자발적·선순환 기부문화 조성 등 장학기금 확충에 전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중이다. 지난 3-4월 지역업체 4est수목원(원장 김건영)을 시작으로 4월에는 해남고구마빵 피남시에(대표 이현미)와 연달아 장학사업기금 기탁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업체에서는 수익의 일부를 장학사업기금으로 기탁할 예정으로, 지역업체와 군 교육이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장학사업기금 500억원 조성에 적극 동참하는 분위기가 일고 있다. 공직자 복지포인트 중 미사용분에 대해 신청을 받아 연말 장학사업기금으로 일괄 기탁된다. 군의 일부 부서에서는 포상금의 일부를 기탁하기로 했으며 공직자 개인이 장학사업기금에 기탁하며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이어지고 있다. 군은 또 올해 인재육성과 교육복지 확대, 교육환경 개선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등 4대 분야, 40개 사업에 총 179억원을 투입·지원할 계획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머물고 싶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장기적·지속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의 미래인 청소년 인재 육성에 투자를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며 "군민들의 교육에 대한 염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분위기가 조성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목포무안신안축협 조합원 자녀 35명에 장학금

목포무안신안축협은 최근 무안 녹색한우타운에서 장학금 수여식을 갖고 조합원 자녀 35명에게 52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사진> 축협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후계양성 장학금 수여식은 지역 인재 양성과 축산업 미래 발전을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1346명의 학생에게 9억330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문만식 목포무안신안축협 조합장은 "땀 흘린 것이 보이기 않는 코로나 시국에도 결국 나라를 위해 일하는 훌륭한 분들 덕분에 세계적으로도 확신지수가 가장 적게 나오고 있다"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학업에 대한 열정을 굽히지 않길 바라며 국가적 재난 상황에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에게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kwangju.co.kr

완도군 청년문화 기획자 양성 교육 참가자 21일까지 모집

완도군이 청년문화 기획자 양성 교육 참가자를 오는 21일까지 모집한다. 모집은 완도군에 주소를 두고 문화 기획자를 꿈꾸는 20-30대(1983-2002년생) 청년으로 선착순 12명이다. 교육 참가비는 무료이나 책임 참가비 10만원을 선수납한 후 80% 이상 교육 수료 시 전액 환급한다. 청년문화 기획자 양성 교육은 지역 청년이 기획자의 시선으로 청년문화를 주도하고, 콘텐츠를 직접 제안과 실행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해 청년문화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시행한다. 교육 과정은 준비-기획-마케팅-실전 4단계를 통해 지역 문화와 연계한 문화 콘텐츠 기획, 문화 기획 프로젝트 실습, 현장 탐방 및 워크숍, 특강 등

으로 구성된다. 특히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 관계자, 문화 기획자 등 지역 문화 주체들의 특강을 통해 지역 사회에 진해 문화 기획활동을 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16주간의 교육 과정 후 직접 제안한 기획안 중 우수작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반영해 기획안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완도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완도의 청년문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제안하고 운영할 수 있는 청년 전문가를 양성해 실제 취·창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손해보험협회

딱 한잔 드셨습니까?

2019년 6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어 딱 한 잔만 마셔도 처벌되고 단속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래도 음주운전하시겠습니까?**

meritz 메리츠화재 | 한화손해보험 | 롯데손해보험 | MG손해보험 | HeungKuk | 삼성화재 | 현대해상 | KB손해보험 | DB손해보험 | SGI서울보증 | AIG | 하나손해보험 | NH손해보험 | KOREAN | BNP PARIBAS CARDIF | CHUBB | Carrot